



배포 즉시 보도

2018. 5. 17.(목)

[03144]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69 동일빌딩 문의: 아이디어청 정책개발실장(010-9065-2287)

<안철수의 3호공약>

“안철수의 안전서울-안심서울” -여심도시, 미세먼지프리존, 재난안전지대-

① 여심(여성안심)도시 서울로 바꾸다.

1. 인공지능CCTV로 여성이 안전한 서울
2. 온라인에서 여성이 행복한 서울
3. 몰카 걱정 없어 여성이 안심하는 서울

② 미세먼지프리존 서울로 바꾸다

1.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지하철 서울
2. 대형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공개하는 서울
3. 한국형 스모그 프리타워 설치, 미세먼지 안심정류장, 수소전기차, 수소버스 단계적 도입

③ 재난안전지대 서울로 바꾸다

1. GMO와 방사능 오염 없는 학교급식 제공하는 서울
2. 화재와 가스 누출을 빅데이터로 예방하는 서울
3. 내진기준강화와 안전진단 정보를 공개하는 서울
4. 라돈과 석면 사라진 서울

1)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는 2018년 5월 17일(목) 14시 여성안전·생활안전 및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해결의 원칙과 방향 그리고 실제로 체감 가능한 서울형 안전대책을 발표하였다.

2) 한편, 이 자리에서 안후보는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 급증하는 몰카범죄 등을 언급하며 “2012년 이후 서울에서 발생한 강력범죄 피해 급증(2012년 5900여건→2015년 9,400여건, 60% 증가)하였으며 특히 서울에서 강력범죄의 여성피해자 비율은 전국 유일하게 90%대를 넘는다”고 관련 통계¹⁾를 인용하며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시스템과 인프라를 구축하고 제도화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몫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안

후보는 ▲인공지능형 CCTV설치를 공약하며 “최근 AI기술은 사람의 구체적인 동작까지 감지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언급하면서 “빅데이터로 분석된 범죄행동양식을 인공지능형 CCTV에 적용하면 특정 동작 감지만으로도 범죄예측 및 즉시 긴급출동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온라인상의 잊혀질 권리를 제도화하기 위한 디지털 인권센터 설립, ▲공중시설 ‘몰카 프리존’구축 및 확대 공약 등을 언급하며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범죄와 몰카범죄 대책 방안을 내놓았다.

3) 안철수 후보는 서울의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한 연구에 따르면 서울·경기지역 조기사망자가 연간 1만5000여명라고 한다. 이미 재난이다”이라면서 정부와 서울시의 안이한 대처를 비판하였다. 특히, “시민들은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면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실내에서 주로 생활하는데 다중이용시설의 실내먼지 수준은 아주 심각하다”며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미세먼지는 어린이집 43%, 지하철 57%가 WHO의 미세먼지기준을 초과한다”는 조사결과를 언급하며 “서울시는 최소한 실내 미세먼지에 대해 즉각적이고 우선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며 반드시 실내 미세먼지는 잡을 것”이라고 밝히며, ▲지하철 등 공공 다중 이용시설 및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 각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취입 즉시 전부 설치하고 또한 ▲대형마트 등 민간 다중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실내공기질 공개제를 강력히 시행하여 민간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에 적극 나서게 유도하겠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한국형 스모그 프리타워를 학교주변 및 취약 지구에 시범 설치하며, ▲도로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클린 로드 시스템 도입 검토 및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자를 위해 미세먼지-zero 스마트 안심 정류장을 설치,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 보급, 수소 버스 단계적 도입과 수소 충전소 인프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4) 한편, 최근 문제가 된 라돈침대를 예를 들며 “일상생활에서의 발암물질, 방사능 물질 등에 대한 감시는 한시도 게을리 할 수 없다”며 우선 아이들의 학교를 중심으로 ▲석면·라돈 프리존을 구축하고 시민들 각 가정에서도 유해물질 탐지를 쉽게 하기 위해 ▲라돈 측정기 대여서비스 제공 등을 약속하였다. 그리고 학교급식 안전대책으로 ▲GMO식재료 단계적 금지, ▲HACCP식재료 사용 의무화 등을 약속하였다. 또한, 안전관련 공약으로 ▲빅데이터를 이용한 재난 예방·예측 시스템 구축, ▲내진설계기준 강화 및 내진 검사 결과 공개 등도 공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6)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의 생활안전·미세먼지 공약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첨부자료 : “여성안전·생활안전 및 미세먼지 세부종합대책”

1) 2015년 여가부 연구보고서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분석 연구' 중

• 서울 2011년 강력범죄피해자수 : 6,853명(여 : 5,726명, 남 : 1,127, 여성비율 : 83.6%)

• 서울 2012년 강력범죄피해자수 : 5,967명(여 : 5,115명, 남 : 872, 여성비율 : 85.4%)

• 서울 2015년 강력범죄피해자수 : 9,403명(여 : 8,614명, 남 : 789, 여성비율 : 91.6%)

• 서울의 2015년 기준 2012년 대비 강력범죄피해자 전체증가율 : 57%, 강력범죄여성피해자 증가율 : 68%

• 2015년 기준 2012년 대비 강력범죄피해자 수 증가율은 인천/경기(수도권)의 강력범죄피해자 수 증가율(32%)보다 서울 강력범죄피해자 증가율(57%)은 25%p높음, 강력범죄여성 피해자 증가율 : 37%(수도권), 서울(68%)로 37%p 높음

• cf) 서울 2011년 강력범죄피해자수 : 6,853명(여 : 5,726명, 남 : 1,127명 여성비율 : 83.6%)

#첨부

[생활안전/미세먼지 세부종합대책]

<여성(생활)범죄 예방 대책>

- ① 지능형 CCTV확대 설치로 시민 위기에 빠르게 대처
 - 주요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지능형 CCTV를 설치 및 확대, 경찰 신고 시스템 연결로, 위기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사건접수 시스템 구축
 - 안심귀가어플과 연동하는 지능형CCTV 설치 확대
- ② 클린 화장실 조성
 - 안심거울 설치

<사이버범죄 예방 대책>

- ① ‘디지털인권센터’ 설립으로 온라인 여성 범죄 최소화
 - 서울시 산하 디지털인권센터 설립 및 온라인상 인권침해 사례 모니터링 및 신고시스템 구축
- ② 공중시설 ‘몰카 프리존’ 구축 및 확대
 - 학교, 지하철, 공공시설 등 공중 화장실에 대한 몰래카메라 점검 및 단속 강화
 - 각 지역구 별 건설 단계부터 몰래카메라 설치 점검 및 상시·불시 점검 체계 마련, 보건 관리 항목에 몰래카메라 단속 사항 추가

<미세먼지 대책>

- ① 어린이집·학교 및 지하철 등 공공다중이용시설
 - 실내 미세먼지 기준 강화
 - 어린이집/학교/경로당 등 공공 실내 공간에 대한 공기청정기 취입 즉시 설치
 - 지하철 역사와 지하철 내 미세먼지 정화 위해 환기구에 공기 정화시스템 설치 및 객실내 공기시설 설치
 - 지하철 운행시 열차풍으로 인한 터널내 비산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 ② 대형마트 등 민간다중이용시설 - 실내 미세먼지 정보 공시제
 - 대형쇼핑몰, 대형마트 등 민간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미세먼지 실시간 공개제를 통해 민간의 자율적 미세먼지 감축 유도
- ③ 스모그프리타워 시범 설치
 - 미세먼지 수준이 심각한 초등학교 인근 지역에 스모그프리타워 시범설치
- ④ 도로 비산먼지 저감 방안
 - 살수차 증차 및 도로 위 물 분사 장치 설치(크린로드시스템, 물 미스트 분사시스템)등 검토
- ⑤ 버스 중앙차로의 정류장 미세먼지 대책
 - 버스중앙차선 미세먼지와 안전 프리존 스마트 안전 버스정류장(Safety-BRT) 설치
- ⑥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 보급, 수소버스 단계적 도입과 수소 충전소 인프라 구축

<먹을거리 안전 대책>

- ① 서울지역 어린이급식과 학교급식에 GMO식품 사용 단계적 금지 추진
 - 급식 유통 식재료에 대한 GMO표시 의무 조례 제정
 - 지역별, 급식기관별 유기농·GMO 식품사용 온라인 공개 추진
- ② 서울지역 단체급식 HACCP 식재료 사용 의무화 및 방사능검사 강화
 - 축산물 등의 일부 필수 식재료부터 단계별 HACCP식품 사용 의무 적용 및 확대
 - 학교 급식 재료에 대한 방사능 검사 학기당 2회로 강화

<지진·화재 등의 재난 대책>

- ① 지진 안전진단 기준 강화
 - 내진설계 및 시공기준 강화 및 내진설계 보안을 위한 건물 리모델링 시, 전문가 자문 지원 및 리모델링 비용 일부 보조
 - 건물지진 안전진단 결과 온라인 공개 추진
- ② 대형 화재위험에 안전한 서울
 - 신규 공공시설물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재 안전강화
 - 방화시설 보안을 위한 건물 리모델링 시, 전문가 자문 지원 및 리모델링 비용 일부 보조
- ③ 빅데이터를 활용한 재난 예방시스템 구축
 - 다중이용시설 및 대형건물에 대한 안전 정보의 빅데이터 구축
 - 재난 사전 예측·예방시스템 구축 지진·화재 등과 연계한 데이터 분석체계 구축

<석면·라돈 등 방사능/발암물질 대책>

- ① 서울시내 유치원과 학교부터 ‘라돈 프리존’
 - 서울시 유치원과 학교 라돈 권고 기준 강화 적용
 - 유치원과 학교 건물의 365일 라돈 가스 정밀 측정기 설치 지원
 - 기준치 이상 라돈 농도 검출 유치원과 학교 건물의 바닥 및 벽 균열 보수 우선 지원
- ② 서울시 가가호호 ‘라돈 프리존’
 - 정밀한 라돈 측정이 가정에서도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 정밀 라돈 측정기(개 당 20만 원 선) 대여 서비스 제공
 - 서울시 25개 지역구별 토양 및 건설 환경을 고려한 라돈 가스 정밀 측정 및 관리 시스템 구축
- ③ 정기적 석면관리로 서울시내 학교를 ‘석면 프리존’으로
 - 석면제거 공사 이후에도 매년 정기적인 석면 농도 측정 및 관리
 - 단계적으로 학교 석면을 비롯한 유해물질 관리 시스템 구축

<끝>